잊지 못할 오월의 봄, 노래 선율로 맞이하다

오월음악, '너의 오월을 들려줘'
5월 한달간 5·18민주광장서 음악회
전국 55개 팀·400여 음악인 참여
창작 가요제·토크 콘서트 등 다채

5월 19일 '오월한일음악교류회'에 출연 예정인 푸른솔시민합창단 공연 장면

2022년 5월 민주광장에서 펼쳐진 상설음악회 '오월의 노래' 공연 장면. 〈오월음악 제공〉

광주 민중의 결기와 폭압의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5·18 민중항쟁이 올해로 44주기를 맞는다. 전국적으로 전시,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예정된 가운데, 5월 한달 간 '음악'을 매개로 5·18 정신을 환기하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어서 이목을 끈다.

오월음악(총감독 박성언)이 5·18민주광장 상설무대에서 '너의 오월을 들려줘'를 5월 내내 진행한다. 이번 음악회는 5월(1, 2, 4, 17, 18, 25일 제외) 내내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5시 30분에 열린다. 전국 55개 초청팀과 400여 명이 넘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인들이 각자 레퍼토리를 풀어낸다.

공연의 막은 오는 3일 '오월,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기획공연으로 올린다. '오월어머니집의 어머니들', '주먹밥 노래단', '승리연주단'을 비롯해 통일을 노래하는 가수 김원중 등이 출연한다.

이어 4일(박성훈·손현숙), 7일(지만주·이씬), 8일(소뉴·문진오), 10일(아이씨 밴드·노래벗), 12일(레코드벨·THE O) 등이 관객들을 만난다.

세대를 초월한 광주 뮤지션들의 콜라보 무대로 채워지는 공연도 있다. 주하주·기드온, 박종화·우물안개구리, 정용주·오월의 봄, 제4집단·이광배 뮤지션이 '어깨 거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각각 9일, 13일, 23일, 29일 라이브 공연을 펼친다.

'오월한일교류음악회'는 광주 푸른솔시민합창단과 일본 일어서라합창단 등이 출연해 합창 앙상블을 들려주는 자리다.(19일 오후 4시 30분 진행). 24일 가수 소금인형, 홍조·한스가 출연하는 '사월에 만나는 오월, 오월에 만나는 사월', 31일 오월어머니집과 주먹밥노래단 등이 선보이는 폐막 공연 'Band of May'도 눈에 띄는 기획이다.

이 밖에도 광주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부에나 모멘또', '광주노동자노래패'는 20일, '베리아이리쉬'와 '고니'는 22일 공연을 앞두고 있다.

행사 일환으로 5·18 당일 펼쳐지는 '2024 광주인권상 시상식'과 25일 열리는 '오월창작가요제'도 주목받는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오월창작가요제'는 5·18민중항쟁을 '음악'으로 승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오월음악이 주최·주관한다.

28일 열리는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의 공연도 '5·18'의 평화 정신과 접맥할 것으로 기대된다. 테너 장호영과 소프라노 윤혜진이 협연할 예정. 토크 콘서트 '오월 친구'(30일)도 관객들을 찾아온다.

오월음악 박성언 총감독은 "이번 '너의 오월을 들려줘' 무대에 서는 뮤지션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행사의 취지와 5월 정신에 공감하고 귀 기울여주시는 관객 한 분 한 분일 것이다"며 "민주광장에서 음악으로 광주의 상처를 위무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오월'을 그려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오월의 노래'는 1980년부터 독재와 폭압에 저항하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열어온 '거리음악제'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매년 시민군 최후 항쟁지였던 (옛)전남도청 별관 앞에서 '5·18'과 '평화'를 주제로 음악제를 펼쳐 왔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깔깔나무'·'어둑시니'가 어린이들 만나러가요

ACC 창제작 4개 작품, 광주·세종·광명·용인서 5월 4~5일 공연

'깔깔나무'

관심은 양가성을 보편적인 특징으로 한다. 어떤 이는 관심받기를 원하고, 어떤 이는 타인의 관심이 불편하다. 관심을 받는 경우도 어느 정도까지가 적절한지 각기 다르다.

연극 '어둑시니'는 관심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전통요괴 '어둑시니'는 관심이 없어 힘든 반면 인간 '아이'는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작품은 우정을 고리로 서로가 함께한다는 주제를 담고 있으며 퍼포먼스 등이 결합돼 이색적인 즐거움을 선사한다.

'어둑시니'를 비롯해 ACC 창·제작 작품이 어린이날 5월을 맞아 전국 어린이 관객을 찾아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세종, 광명, 용인, 광주 북구 등에서 5월 4~5일 4개 작품을 유통한다.

먼저 5월 4일 광주 북구문화센터에서 펼쳐지는 작품은 인형음악극 '깔깔나무'. 생명과 일상의 중요함을 모티브로 제작됐으며, 목각인형을 전문 연극배우가 연기해 눈길을 끈다.

이어 5월 4일과 5일에는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어둑시니', 광명극장 '보이야르의 노래', 용인 어린이 상상의 숲에서 '세 친구'가 관객들을 찾아간다.

난민들의 아픔과 희망을 노래하는 '보이야르 노래'는 아이들의 시선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공연 전 후 ACC 어린이문화원 체험도 곁들여진다.

카자흐스탄 민화로 서사화가 이루어진 '세 친구'는 새끼염소와 아기양, 송아지가 태양을 찾아 떠나는 모험기다.

조정란 문화유통팀장은 "이번 공연은 우수한 ACC 창·제작 콘텐츠가 전국에서 유통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신록의 계절 전국 네 곳에서 공연되는 이번 작품들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우정을 북돋아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티켓 예매는 '깔깔나무' 티켓링크, '어둑시니' 세종문화예술회관 누리집, '보이야르의 노래'와'세친구'는 인터파크에서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플루트와 클라리넷이 들려주는 모차르트'

최지혜·주민혁 등 출연…5월15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플루트 최지혜

클라리넷 주민혁

"모차르트의 실내악 작품 중에서도 '보석' 같은 '플루트 사중주'와 '클라리넷 오중주'를 들려드릴 계획입니다."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5월 15일 오후 3시 펼쳐지는 '플루트와 클라리넷이 들려주는 모차르트'. 공연을 앞둔 '앙상블 소노' 대표 최지혜 씨의 말이다. 이번 공연은 고전주의 음악을 대표하며 서양 음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모차르트'의 작품들을 다룰 예정이다.

최 씨는 "모차르트는 피아노와 오페라, 현악 사중주 등으로 알려졌지만, 플루트와 클라리넷을 위한 실내악 작품도 많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라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공연은 모차르트 '플루트 사중주 1번 라장조', '플루트 사중주 4번 가장조'를 비롯해 '클라리넷 오중주 가장조' 등으로 채워진다. 여기에 연주자가 직접 들려주는 작품 소개 및 작품을 대하는 태도 등 에피소드를 곁들여 관객들의 '음악에 대한 흥미'를 끌어낼 것이라는 계획이다.

플루트 연주는 최지혜가, 클라리넷은 주민혁이 맡는다. 바이올린(강다영·김소연), 비올라(엄광용), 첼로(이후성) 연주자도 출연할 예정이다.

모차르트의 '피아노곡', '현악 사중주' 및 '교향곡'에 비해 '관악기를 포함한 실내악곡'은 그동안 연주회에서 자주 볼 수 없었다.

전석 무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영화 '정순' 정지혜 감독과 씨네 토크

5월1일 광주극장서 영화 상영 후 관객과 대화

'정순'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대상 수상작', '제17회 로마국제영화제 2관왕', '제7회 아스완국제여성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수상', '전 세계 19개 영화제 초청 및 8관왕 등극'….

정지혜 감독의 데뷔작 '정순'을 설명하는 수식어들이다. 지난 17일 개봉한 영화 '정순'은 'N번방 사건' 등과 맞물려 불거진 시의적인 소재 '디지털 성범죄'를 다뤄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정지혜 감독이 오는 5월 1일 오후 7시 20분 광주극장 GV로 관객들을 만난다. 영화 '정순'을 상영한 뒤, 정지혜 감독과 씨네 토크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된다.

평범한 일상을 살던 중년의 정순은 공장에서 일하며 혼자 산다. 그녀에게는 폐차장에서 일하는 딸 유진이 있는데 이들은 서로 유대하며 꿋꿋하게 살아간다. 어느 날 정순이 일하는 공장에 영수라는 중년 남자가 새로 들어오고, 정순과 가까워진 영수는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정순은 자신이 좋아하는 영수를 위해 속옷 바람으로 춤을 추고 이 모습을 영수는 영상으로 남기게 된다. 시간이 흘러 공장 사람들의 단톡방에서 이 영상이 퍼져 나가며 벌어지는 이야기.(김금순, 윤금선아, 조현우 등 출연)

광주극장 김형수 전무는 "시의적인 문제인 '디지털 성범죄'를 극화한 작품이 관객들과 사회에 메시지를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정지혜 감독의 스승으로 알려진 김희정 감독이 이번 행사 진행을 맡아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디트릭스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시민문화관·빛고을아트스페이스 리뉴얼

광주문화재단은 빛고을시민문화관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내부 공간 구성을 리뉴얼, 재배치한다.

미디어아트특화공간 사업종료에 따라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에 자리한 스페이스5G 네 공간을 리모델링해 공공 문화 편의 서비스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보듬10000센터와 광주예술인복지센터(상담창구) 공간을 확장해 시민과 예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통과 협업의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별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홀로그램극장과 2층 미디어아카이브실도 바뀐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G.MAP과 사업을 연계, '2024 디지털아트 컬처랩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 2층에 위치한 미디어338 공간은 광주 예술인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 공간으로 '교육사업 컨설팅, 예술기획자 워크숍, 성과 공유회, 결과 전시회 등'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1층 미디어아트 레지던스로 운영되던 공간을 지역 문화예술분야 단체(기업) 및 개인(작가)의 창작과 창업, 시민문화 향유를 위한 광주예술창작소 공간으로 리뉴얼, 재배치할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